화엄사, 미디어 노출 효과 '145억원' 창출

화엄사, 동국대 WISE캠 공동 분석
홈페이지 접속 1000만 명 돌파
"보는 사찰서 머무는 콘텐츠 진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가 '문화공간 확장'이라는 홍보 전략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올해 열린 화엄문화제 중 요가대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구례 화엄사가 '문화공간 확장'이라는 새로운 사찰 홍보 전략을 통해 미디어 노출 효과 145억원,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다양한 문화 행사로 화엄사가 호남 및 지리산 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위원장 성기홍)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과 공동으로 '2025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이미지 노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3·2024년과 마찬가지로 공중파·종편 뉴스, TV 문화 프로그램, 온라인 포털,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지리산 화엄사' 관련 키워드와 이미지를 CPT 방식으로 정량화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미디어 노출 효과는 총 1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매화 사진대회가 78억4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모기장 영화음악회 24억원, 화엄문화제 17억원, 요가대회 5억4000만원, 기타 프로그램 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매화 축제는 2024년 25만 명, 2025년 30만 명이 찾으며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했다.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구례가 불교의 역사적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며 관광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쉬프트 효과"라며 숙박업·카페·음식점 등 지역 상권 증가 통계를 근거로 분석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이번 성과가 "전임 주지 덕문 스님의 지역 중심 포교와 문화 활동의 결실"임을 언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사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구례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엄사의 미디어 노출 가치는 2021년 37억원, 2022년 46억원, 2023년 82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145억원으로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 2023년 일일 3000명에서 2025년 2만 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월평균 접속자 역시 9만1000명에서 67만4000명으로 늘었다. 연간 접속자 수는 올해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문승옥 구례군 부의장은 화엄사가 "구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매화 사진대회와 같은 문화행사가 대규모 방문객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 확산에 따른 주민 일자리 증가, 계절 관광객 확대, 공동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파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기획위원장은 △문화확장형 마케팅 △SNS 이미지 확산 △포털·리뷰 플랫폼의 긍정적 반응 △대규모 축제 효과 △인지도 상승 △문화관광 트렌드 강화 등을 변화의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홈페이지에 숙박·맛집·문화유산·카페 등 정보를 유료 콘텐츠로 연결해 "보는 사찰에서 머무는 콘텐츠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 미타암, 7년 불사 회향하며 '자비나눔'

12월 9일 공양간 등 불사 회향
장학금–이웃돕기 후원 자비나눔
"기도 수행 나눔 도량으로 발돋움"



양산 미타암이 7년간 진행해 온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9일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양산 미타암(주지 동진 스님)이 7년간 진행해 온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9일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나동연 양산시장, 자재천 불교사무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회향식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감사패 증정,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와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타암은 이희종 양산시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오상호 웅상출장소장에게 라면 1000박스를 전달하며 불사 공덕을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주지 동진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불사는 실제 공사 기간 2년을 포함해 준비와 기반 정비까지 약 7년에 걸친 원력의 결실"이라며 "험준한 지형 속에서 접근로 개설과 급·배수 문제 해결, 주변 환경 정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사부대중과 인연들의 정성으로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새 공양간은 신행과 수행 공간을 갖춘 복합 공간"이라며 "기도와 수행, 공양과 나눔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미타암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에는 약 23억원이 투입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법문에서 "미타암은 신라 646년 원효 대사의 수행 인연이 전해지는 영남 최고의 관음기도 도량으로 그 법맥을 이어 오고 있다"며 "동진 스님이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원력을 세워 사부대중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완성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미타암에서 세운 기도의 원력이 지역을 넘어 나라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오랜 시간 정성과 원력이 쌓여 공양간 불사가 원만히 회향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불사가 미타암을 찾는 불자와 시민에게 더욱 편안한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서영호 양산시 문화관광과 주무관, 서금석 시천건설 사장, 김재경 범진전기 사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미타암은 "불사 회향을 계기로 기도·수행·공양·나눔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하의 날씨에도 '캠플스테이'는 계속

해군사관생도 19명 참가
절 마당 텐트, 불교 체험



지리산 자락에서 미래 해군 장교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2월 5~6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캠플스테이 하신화심(下身華心)'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생도 19명을 초청해 영하의 추위에도 야외 텐트 캠핑을 진행했다.

혹한기에도 자연과 마주하며 마음을 비추는 특별한 체험을 이어 간 이번 프로그램은 생도들에게 엄격한 군사훈련에서는 얻기 어려운 사유와 내적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

생도들은 지리산의 바람과 고요한 숲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진필승 해군사관학교 군종실장(중령)은 "자연의 품에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시간은 생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었다"며 "미래의 리더로서 각오를 다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학년 김은기 생도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으면 휴대전화만 보며 지나갔을 텐데,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사 홍보국장 범정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며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보다 먼저 건강한 마음, 강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찾아가는 법회' 감동 어르신께 '회향'

정읍 보림사, 어르신 孝큰잔치
12월 6일 정읍국민체육센터서



매월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통해 전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어르신 효큰잔치를 개최했다.

12월 6일 정읍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보림사 어르신 효큰잔치'에는 4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해 따뜻한 점심식사와 함께 개그맨 손헌수 등이 출연하는 신바람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마을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보림사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보고 감명받은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과 어르신 4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행사장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보림사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갈비탕으로 점심식사 후 축하공연을 즐겼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보림사에 부임한 이후 많은 마을을 찾아 다니며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큰 행사도 열 수 있었다" 며 "그동안 27개 마을을 다녔는데 새해부터는 정읍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인불교계 "지역 불교 활성화를"

12월 7일 호국선봉사서 송년법회 봉행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발원하는 '2025 용인불교 송년법회'가 12월 7일 호국선봉사에서 봉행됐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신도회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시도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불사가 원만히 회향한 데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의 대표적 인물인 김윤후 승장 추모사업을 기념 전각 조성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용인불교의 거점이 될 용인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지역 불교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법석에 오른 자광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용인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용인시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도시 용인이 아닌 문화도시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화도시 용인의 상징은 처인성이고, 그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 김윤후 스님"이라며 "이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불교계는 물론 시와 관계기관 모두가 원력을 모아 문화도시 용인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광 스님은 용인불교사암연합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 청년 포교를 위해 용인 소재 대학 불교동아리 3곳에 동아리 운영 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수덕사, 만공 스님 열반 79주기 추모다례

12월 9일 정혜사 등서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2월 9일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 열반 7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전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대전 청화사 주지 효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중은 다례재에 앞서 만공 스님의 진영을 봉안한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설정 스님은 "만공탑에 새겨진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과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가 만공 스님의 깨달음 세계를 응축한 표현"이라며 "만공 스님의 법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림"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정법사, 오계·선재팔계 수계산림

12월 6일 신도 384명 동참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2월 6일 만불보전에서 삼귀의계·선재팔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인 광우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계는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준이며, 일상 속 실천이 곧 수행"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인 수계자들은 오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선재팔계를 수계했다. 광우 스님은 오계가 자비와 평화, 정직과 지혜의 삶을 위한 근본 계율임을 설명하고, 선재팔계는 어린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35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12월 5일 창원 성주사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12월 5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5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문학상 김병수 시인, 예술상 이상용 극작가, 언론상 정은희 MBC경남 편성부장, 행원상 김장하 선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각 상금 700만원과 금동향로 상패가 수여됐다.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난 35년간 산해원문화상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왔다"며 "올해 수상자 네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해 온 선구자들"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심사위원단과 연합회 스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합회는 산해원문화상의 정신을 이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